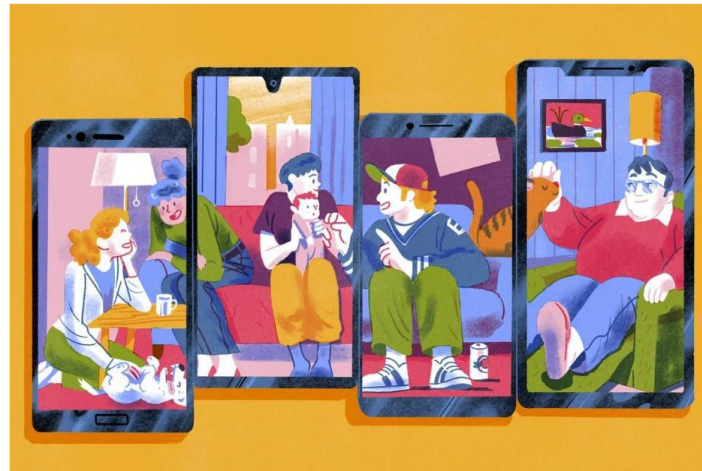


2023 생활과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 
가정과삶의질학회 포스터 발표

# 청년의 가족단독방 활용 현황 및 관련 요인 탐색

2023. 6. 3.

이재림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), 윤보라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)



#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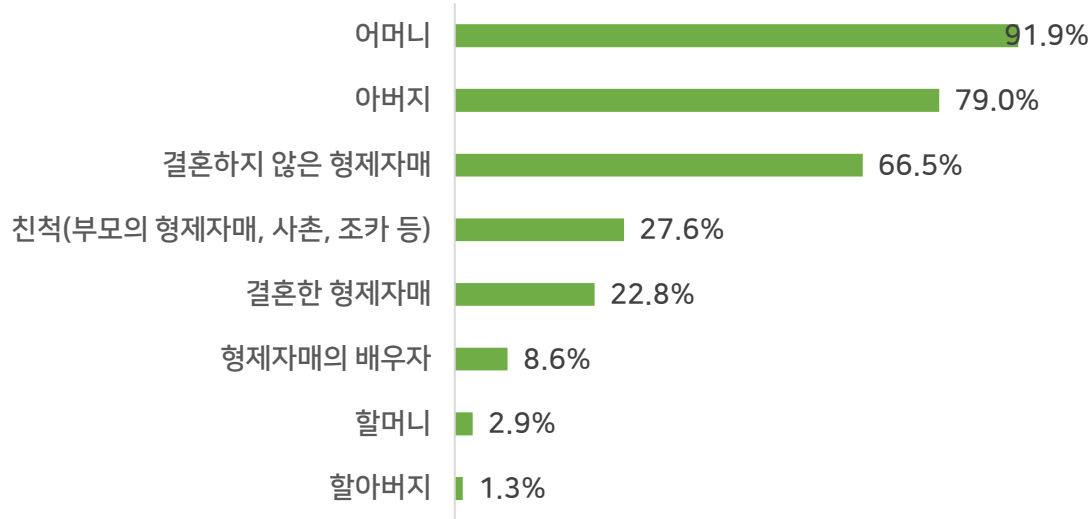
- 가족단톡방(인스턴트 메신저 가족 단체채팅방)의 가족학적 의의
  - 3명 이상의 가족 및 친족 구성원이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문자, 이모티콘, 사진, 영상 등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공간: '가족 단위' 의사소통
  -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온라인에서는 모여 있는 '가상의 거실'(이지훈, 2023)
- 연구의 목적: 한국 청년의 가족단톡방 활용에 대해 다음의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봄
  - 가족단톡방 활용 현황
  - 가족단톡방 활용 여부 및 활용 빈도의 **관련 요인**
  - 가족단톡방 활용 여부 및 활용 빈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 수준의 차이

- 분석자료: 만 20-34세, 결혼 경험이 없는 무자녀 청년이 응답한 온라인 조사 자료 중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하는 총 1,098명 응답 (할당표집, 불성실 응답 제외)
- 분석방법: 기술통계분석, 이항로지회귀분석, 중다회귀분석,  $t$ 검증, 상관분석 (Stata/SE 17.0)

# 가족단톡방 활용 현황

- 지난 1년 가족이나 친척과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는 비율: **75.6%** (830명)
- 있는 경우, 지난 1년 가족이나 친척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는 단톡방의 수: **평균 1.91개** (표준편차 = 1.4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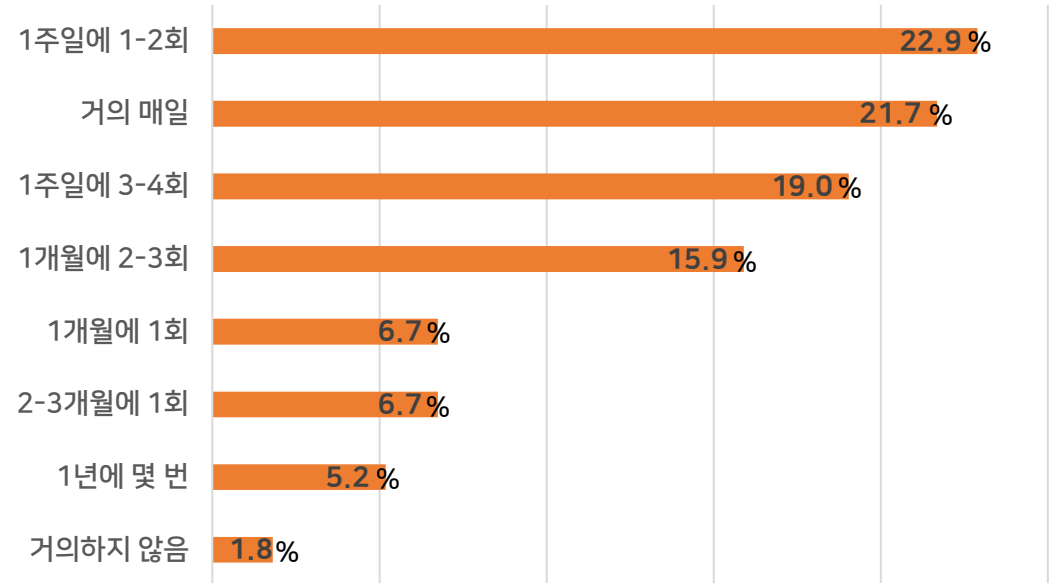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1개 이상 가족단톡방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(모두 선택, %, N= 830)



## 1개 이상 가족단톡방에 포함된 가족구성원

- 어머니 (91.9%) > 아버지 (79.0%)  
>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(66.5%)  
> 친척(부모의 형제자매, 사촌, 조카 등) (22.8%)
- 가족단톡방에서 아버지가 제외된 경우가 약 20%

<그림 2> 가장 자주 사용한 가족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빈도 (% , N= 830)



## 가장 자주 사용한 가족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빈도

- 1주일에 1-2회 (22.9%) > 거의 매일 (21.7%)  
> 1주일에 3-4회 (19.0%) > 1개월에 2-3회 (15.9%)

# 가족단톡방 활용 여부 및 활용 빈도 관련 요인

## 가족단톡방 활용 여부 이항로지회귀분석 결과

- 여성일 때
  - 주관적 계층을 높게 인식할 때
  - 연애하고 있을 때
  - 가족을 중요하다고 여길 때
  - 형제자매수가 많을 때
  - 부모가 기혼 상태일 때
  -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
- 가족단톡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음

## 가족단톡방 활용 빈도 중다회귀분석 결과

- 교육연수가 길 때
  - 주관적 계층을 높게 인식할 때
  - 근로시간이 길 때
  - 가족을 중요하다고 여길 때
  - 형제자매 수가 많을 때
  - 부모와 대면으로 자주 상호작용할 때
  - 세대 간 애정적 결속 수준이 높을 때
- 가족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는 빈도가 높았음

<표 1> 가족단톡방 활용 여부 및 활용 빈도 관련 요인 분석결과

		활용 여부 (N = 1,098)	활용 빈도 (N = 830)	
변수		OR (SE)	B (SE)	
개인특성	성별 (1 = 여성)	1.66 (0.26)**	-0.02 (0.13)	
	연령	1.00 (0.02)	0.03 (0.02)	
	교육연수	1.18 (0.11)	0.18 (0.08)*	
	학생여부 (1 = 학생)	1.10 (0.29)	-0.28 (0.22)	
	주관적 계층	1.12 (0.06)*	0.10 (0.04)*	
	근로시간	1.00 (0.00)	0.01 (0.00)*	
	연애여부 (1 = 연애함)	1.53 (0.26)*	-0.05 (0.13)	
	가족 중요도	1.74 (0.18)***	0.24 (0.10)*	
	형제자매 수	1.61 (0.18)***	0.19 (0.09)*	
	부모특성	결혼지위 (1 = 기혼)	1.54 (0.29)*	0.26 (0.17)
교육수준		1.14 (0.06)*	0.04 (0.04)	
응답자와 동거여부 (1 = 동거)		1.27 (0.28)	-0.07 (0.19)	
생활비 부모지원비율		1.00 (0.00)	0.00 (0.00)	
대면상호작용 빈도		1.03 (0.05)	0.13 (0.05)**	
세대 간 애정적 결속		1.08 (0.09)	0.14 (0.07)*	
헬리콥터 부모역할		1.06 (0.09)	-0.13 (0.07)	
절편		0.00 (0.00)***	0.82 (0.81)	
		Pseudo R <sup>2</sup> = .11	R <sup>2</sup> = .09	

\*p < .05. \*\*p < .01. \*\*\*p < .001.

# 가족단독방 활용 여부 및 활용 빈도와 심리적 복지

<표 2>가족단독방 활용 여부별 심리적 복지 집단 차이

	활용 (n = 830)		미활용 (n = 268)		t
	M	SD	M	SD	
정서적 웰빙(0-5)	2.48	0.03	2.20	0.06	-3.61***
사회적 웰빙(0-5)	1.76	0.04	1.57	0.07	-2.50*
심리적 웰빙(0-5)	2.27	0.04	1.95	0.07	-3.80***
행복(1-10)	6.32	0.08	5.60	0.12	-5.11***
외로움(1-4)	2.23	0.02	2.32	0.04	2.16*
우울(1-5)	2.32	0.04	2.39	0.06	0.91

\*p < .05. \*\*p < .01. \*\*\*p < .001.

## 활용 여부별 심리적 복지의 평균 차이 t 검증 결과

활용 집단이 미활용 집단보다 정서적, 사회적, 심리적 웰빙 및 행복 수준이 높았고 외로움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음

<표 3> 가족단독방 활용 빈도와 심리적 복지의 상관관계

	r
정서적 웰빙	.10***
사회적 웰빙	.03
심리적 웰빙	.08**
행복	.13***
우울	-.11***
외로움	-.15***

\*\*p < .01. \*\*\*p < .001.

## 활용 빈도와 심리적 복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

- 정적 상관: 정서적 웰빙, 심리적 웰빙, 행복
- 부정 상관: 우울, 외로움

## 측정도구

- 정서적, 사회적, 심리적 웰빙: Mental Health Continuum-Short Form (MHC-SF; Keyes et al., 2008)의 한국어판 척도(임영진 외, 2010) 각 하위영역 3문항, 5문항, 6문항(0-5점)
- 외로움: UCLA 외로움 단축형 척도 - Hays & DiMatteo(1987)가 개발하고 안도연(2008)이 번안한 8문항(1-4점)
- 우울: Psychological Distress 단축형 척도(K6) - Kessler et al.(2002)의 5문항(1-5점)

# 논의

- 가족 단위 디지털 의사소통의 새로운 창구인 가족단톡방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탐색적 성격을 띠는 연구임
- 만 20-34세 청년 4명 중 3명꼴로 가족단톡방 활용
  - 가족단톡방 활용자의 1/5 이상이 친척(부모의 형제자매 등)과도 가족단톡방을 통해 소통
  - 본인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
- 가족단톡방과 가족의 대면 상호작용
  - 부모와 대면으로 자주 상호작용할 때 가족단톡방을 더 자주 활용
    - ◀ 가족단톡방이 대면 상호작용의 연장선에 있을 가능성
  - 근로시간이 길 때 가족단톡방을 더 자주 활용
    - ◀ 가족단톡방이 대면 상호작용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
- 가족단톡방이 청년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 
[주의] 기초적인 분석 결과이므로, 인과관계나 효과로 해석할 수 없음
- 가족단톡방 활용의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 필요